

전북도, 외부 차입금 제로화 추진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기금 조성액·지역개발기금 유휴자금 활용 고리 지방채 조기 상환 통해

전북도는 재정지출 효율성과 채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금리 지방채 1,780억원을 조기 상환을 추진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채무는 7,888억원(행자부 기준)으로, 경직성 경비인 채무상환 지출(임금+이자)이 연간 638억원(2016년 기준)에 달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재정운용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 민선 6기 들어 채무 건전성 제고를 재정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등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345억원의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상환, 63억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은행과 협상 등을 통해 고금리 지방채의 이자를 저금리로 조정해 50억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고금리 외부 차입금 잔액 693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 상황을 분석한 결과, 12개 기금 조성액 2922억원 중 기금 목적사업 운용에 필요한 2657억원을 제외한 265억원과 최근 시군 등의 용자수요 감소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도 117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금기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는 올 결산추경에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 1,435억원을 적극 활용해 고금리 지방채 1,435억원을 조기



도립국악원 개원 30주년 최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희장에서 전라북도립국악원 개원 30주년 행사가 '국악' 다저은 30년 꽃피울 30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공로패를 전하고 있다.

에 상환,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북도의 계획대로 조기상환이 완료되면, 시중은행과 정부자금에서 빌린 외부 차입금은 전액 조기 상환해 제로화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상환금만 남게 되는데, 이는 시군 용자 회수금

등을 통해 계획대로 상환할 방침이다.

이번 조기상환을 통해 269억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지방채 상환 부담도 크게 줄어 도정 핵심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 가능재원 확충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 채무비율은 13%로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4번째로 건전

한 수준이지만, 채무 건전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채무상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내일 오후 2시 '지진 대피 훈련'

도내 전 지역에서 '민방위의 날 훈련' 으로

오는 19일 전북 전 지역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이뤄진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2시 제403차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펼쳐진다.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진발생 상황을 가정해 이뤄지며 주민통제(19분)와 교통 통제(5분) 등이 진행된다.

또 소방대원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 지진대피요령과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도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도민들이 지진대피요령을 숙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뉴스

"정화 위해 오염원인자 채권 확보 우선돼야"

정헌을 익산시장, 국정감사에서 폐석산 불법매립 심각성 설명 환경부장관·익산시장, 조치명령·정화책임에 대해 논쟁 만

정헌을 익산시장이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 고인으로 출석하여 익산시 석산복구 지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심각성을 밝혔다.

정 시장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불법지정폐기물 사건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과 익산시 조치사항을 묻는 질문에 "시에서 복구지 현장에 대한 긴급조치와 지하수 피해 방지를 위한 생수공급, 상수도 설치 등이 되었지만, 막대한 정화비용이 드는 만큼 원상회복을 위해 오염원인자에 대한 채권확보가 우선돼야 된다"고 밝혔다.

앞선 9월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의원이 전국적으로 불법 반출된 지정 폐기물 17만톤에 대한 공개와 대책마

련을 환경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조 경규 환경부 장관은 실태조사 실시와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어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정폐기물 불법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예상되 었던 바와는 달리 환경부장관과 익산 시장은 조치명령과 정화책임에 대해 여 긴 논쟁을 펼쳤다.

새누리당 장석천 의원은 산지관리 법과 관련하여 광채가 채움재로 사용 되게 된 경우와 문제점을 지적했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014년 복구 지 주변 민원사건 관련한 전라북도과 환경부가 익산시의 미흡한 대응을 질책하며, 환경부가 익산시의 공동책임으로 공동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국상업경진대회 도 88명 참가

전국상업경진대회에 전북 지역에서는 총 88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서울간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제 6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도내 상업계 특성학교 10개 학교 88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세상을 깨우는 질문! 미래를 품는 비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상업계열 19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동아리 페스티벌과 동아리 한마당·경제 골든벨·취업진로 포트폴리오 전시 등이 펼쳐진다.

특히 재능이 있는 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회계 실무와 창업 아이 템·비즈니스 영어·정보활용 능력·금융 실무·관광경영 실무 등도 진행된다. /뉴스

'2016 하반기 전북트래블마트' 오늘 개최

내일까지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점서... 여행사·홍보관계자 500여명 대상

'전라북도가 국내·외 관광객유치 활성화를 위한 '2016 하반기 전북트래블마트'를 서울 한복판인 티마크그랜드호텔 명동점에서 개최한다.

2016년 하반기 전북트래블마트 행사는 여행사 및 홍보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14개 시·군과 관광업체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태권도진흥재단 등 35개 기관 및 단체가 상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한다.

첫날인 18일은 1부 상담회와 2부 설명회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튿날인 19일은 찾아가는 상담회인 여행사 세일즈 토크를 실시한다.

특히, 1부에 열리는 상담회는 지자체나 업체가 여행사와 홍보담당자에게 1대1로 상담을 직접 실시해 맞춤형 관광상품을 행사장에서 즉시 기획하기 때문에 여행사와 홍보담당자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반기 행사에서 지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설명회는 관광상품 소개와 퀴즈쇼 등 작은 이벤트를 통해 여행사와 홍보관계자들이 함께 답소를 나누며 전북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으로 꾸민다.

행사를 주관하는 전북도 유권주 관 광총괄과장은 "전북트래블마트 행사

는 도, 시·군 및 업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협력하고 있는 홍보 마케팅으로 현장에서 여행사나 홍보관계자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모두 제공 받고 받을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전북트래블마트 행사는 전북도와 14개 시·군 및 업체, 도내 유관기관의 협력마케팅 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전국 지자체 트래블마트 행사로서는 전국 최초로 시작했으며, 2016년 2월에 이어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전주조사 실시

순창군, 287세대 대상 개별 방문 면담

순창군이 다문화 가족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전주조사에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주 조사는 관내 다문화가족 287세대를 모두 포함하며 주거, 경제, 고용 직업, 의료와 정신 건강,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심도 있는 문제 파악을 위해 읍면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접 다문화 가정을 개별 방문해 면담을 통해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실태조사서는 다문화 가정의 객관적 생활 실태는 물론 사회적 관계망, 취업 및 직무수행상 문제, 가족생활 문제 등 주요 문제를 체크하고 상담자와의 입체적 상담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 등 주관적 문제도 다룬다. /순창=이양원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16-757호

장수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 주민 공람 공고

장수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수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지구 및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불임생략(공람장소비치)
- 입안사유: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관할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제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함

2.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계개 익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 장수군청 건설경제과 (☎ 350-2431, FAX 350-2327)

4. 관계도서(불임 생략)

- 장수군 건설경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5. 기타사항

- 본 공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 10. 17. 장수군 수